

- 주요 뉴스: 7월 FOMC, 금리 동결 파월 의장은 9월 금리인하 관련 결정된 내용 없다고 언급
 - 미국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 관세 15% 및 3500억달러의 對美 투자 포함
 - 미국 2/4분기 GDP, 예상치 상회. Meta와 Microsoft의 분기 매출과 이익은 호조
 - 유로존 2/4분기 GDP 성장률, 전기비 둔화 불구 예상치 상회. 금리인하 기대 약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7월 FOMC 결과, 양호한 2/4분기 GDP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세[+1.1%],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9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의 관련 부정적 평가 지속 등으로 약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예상치 상회한 2/4분기 GDP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2%,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관세騰 인플레이션 우려 표명 등으로 상승
독일은 2/4분기 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 등으로 약보합

※ 뉴욕 1M NDF 종가 1390.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3.3원, 0.74% 상승). 한국 CDS 강보합

		7/30일	7/29일	전일대비			7/30일	7/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62.9	6,370.9	-0.12%	국채 금리 10y	미국	4.37%	4.32%	+5bp
	유럽	550.24	550.36	-0.02%		독일	2.71%	2.71%	-0bp
	중국	3,615.7	3,609.7	+0.17%		영국	4.60%	4.63%	-3bp
	일본	40,655	40,675	-0.05%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3,254.5	3,230.6	+0.74%		중국	42bp	41bp	+1bp
환율	달러지수	99.94	98.89	+1.07%	위험 지표	EMBI+	-	356	-
	유로화	1.1405	1.1547	-1.23%		VIX	15.48	15.98	-3.13%
	엔화	149.51	148.46	-0.70%		WTI유	70.00	69.21	+1.14%
	위안화	7.1972	7.1770	-0.28%	원자재	구리	558.6	560.4	-0.31%
	원화	1,383.1	1,391.0	+0.57%		금	3,275.2	3,326.6	-1.5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7월 FOMC, 금리 동결. 파월 의장은 9월 금리인하 관련 결정된 내용 없다고 언급

- 7월 FOMC에서 연준은 현행 금리(4.25~4.50%)를 동결. 성명서를 통해 경제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라고 평가. 또한 순수출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최근 주요 지표는 금년 상반기 경제 활동 성장이 완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고 설명
- 투표에 참여한 11명 가운데 2명의 위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는 연준 내부에 금리결정 관련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인하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위원들은 통화정책 결정을 위해 여러 지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
- 또한 현재 다수의 위원은 다소 긴축적인 정책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가 대체로 탄탄하다는 점과 관세 충격에 따른 물가상승 위험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각은 타당하다고 설명
- 아울러 연준은 노동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조짐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 그러나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단기에 그칠 수도 혹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첨언
- CME의 Fed Watch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45%로 낮추고, 연내 금리인하도 1회(10월, 0.25%p)로 예상. 시장에서는 향후 2개월 동안의 경제 지표가 금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리인하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노동시장 악화 신호가 발생할 때 가능할 것으로 평가(Goldman Sach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 관세 15% 및 3500억달러의 對美 투자 포함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 이에 따르면, 한국에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對美 투자를 약속. 또한 한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혹은 여타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이 외에도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하는 상황.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도 개최할 방침

■ 미국 2/4분기 GDP, 예상치 상회. Meta와 Microsoft의 분기 매출과 이익은 호조

-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비연율, 속보치)은 3.0%로 전기(-0.5%)의 역성장에서 반등에 성공했고, 예상치(2.3%)도 상회. 이는 수입급감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소비지출 회복 등에 기인. 2/4분기 PCE 물가 상승률(연율)은 2.1%로 전기(3.7%) 대비 둔화. 7월 ADP 민간고용도 10.4만명 늘어 예상치(6.5만명) 상회했으며, 이는 관세전쟁 완화로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선 것으로 추정
- 한편 Meta의 4~6월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475.2억달러, 7.14달러를 기록 예상치(각각 448억달러, 5.92달러) 상회. 이는 광고부문 이익 급증에 기인. Microsoft 역시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764.4억달러, 3.65달러로 예상치(각각 738.1억달러, 3.37달러) 대비 높은 수준. 클라우드 등 대부분의 사업이 호조

■ 유로존 2/4분기 GDP 성장률, 전기비 둔화 불구 예상치 상회. 금리인하 기대 약화

- 2/4분기 GDP가 전기비 0.1% 증가, 전기(0.6%) 대비 저조했으나 예상치(0.0%) 대비 높은 수준. 독일의 경우 -0.1% 기록. 이번 결과는 미국의 관세 부과 이전에 증가했던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先수출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 다만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ECB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감소

■ 중국 허리펑 부총리,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본질은 상호이익 증대

-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 대표로 나섰던 허리펑 부총리는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본질은 상호이익 증대 및 윈윈(win-win)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 또한 양국의 지속 가능한 무역관계는 전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첨언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동결.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등을 반영

-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75%로 동결. 맥클렘 총재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위원들은 이번 금리 동결과 향후 신중한 정책 결정에 모두 같은 의견을 가졌다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3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PCE 물가·개인 소비 및 소득, 7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중국 7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향후 연준의 금리인하, 현실화 시 이는 경기 부진에 따른 대응일 소지 - 블룸버그

(A Dovish Fed Would Be Nothing to Cheer)

- 연준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상반기 경제활동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노동시장 하방 위험을 강조. 6월 고용률이 3.3%로 팬데믹 이전 평균인 3.9%를 하회한 가운데, 현 시점에서 금년 및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각각 1.5%, 1.6%)는 모두 '20년 경기침체 이후 가장 낮은 수준(Bloomberg)
- 또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선물시장에서 향후 12개월 인플레이션(연율) 전망은 작년 9월 이후 두 배 이상 상승한 3.44%로 연준 목표를 크게 상회.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금리인하 현실화 시, 이는 물가 제어가 아닌, 경기침체 회피가 주요 목적이 될 것으로 추정. 또한 금리인하가 단행되어도 차입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 트럼프의 對中 정책 완화, 지정학적 위험 증가·국제적 영향력 약화 유도 - 블룸버그

(Going Soft on China Could Be a Hard Lesson)

- 트럼프는 취임 직후 시행했던 對中 수출 통제와 기술에 대한 일부 규제들을 철회하고 Nvidia의 고성능 칩인 H20의 수출을 승인. 아울러 틱톡 금지법 유예와 기술 수출 통제 추가 완화 등도 검토.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대만을 냉대하는 입장을 견지. 이 외에 동맹국에는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
-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의 움직임은 주요 동맹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 또한 대학 연구 지원금 삭감 등은 장기적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우려. 가장 큰 위험은 기술 유출로 인한 중국 군사력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

■ 일본의 국가부채 개선, 대외여건·저성장 고려 시 지속 여부는 불투명 - Financial Times

(Should we be alarmed or optimistic about Japan's debt?)

- 일본의 국가부채 관련 상반된 전망이 제기. 일부에서는 최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한 것은 국가부채 우려 신호라고 평가. 반면, 금년 1/4분기 재정적자의 제로 수준 근접은 긍정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제기
- 한편, 당국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여러 경기부양책을 통해 일부 임금상승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디플레이션 극복에는 불충분. 또한 대외여건이 미국의 관세부과 및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국내 측면에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경제 성장 저해 요인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

■ **미국 트럼프의 일방적 무역협정, 결국 최대 피해자는 미국 - 블룸버그**

(US will be the biggest loser from trade 'Wins')

- 미국 정부는 EU·일본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큰 승리'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안기는 'lose-lose' 거래. 이번 협정은 대부분의 對美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결국 자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 문제는 단순한 수입물가 상승에 그치지 않는데, 자국 내 생산자들의 경쟁 압력과 혁신 유인이 악화되고 가격인상 유인은 커지면서 국민 생활수준 저하로 이어질 소지. 관세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그것을 부과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
- 또한 이번 협정은 완결되지 않은 기본 합의에 가깝고, 아직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분쟁 소지가 상당. 특히 이번 협정으로 동맹국을 복종 대상으로 보는 행정부의 태도가 굳어질 경우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

■ **미국 트럼프의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언 재판, 승소 시 일방적 관세 부과 지속 예상 - WSJ**

(Trump Sees Emergencies Everywhere. Judges Are Considering Whether to Rein Him In.)

■ **양호한 미국 2/4분기 GDP, 수입 및 민간 투자 감소라는 이례적 특성을 동반 - WSJ**

(The Weirdest GDP Report Ever)

■ **미국 트럼프의 연준 장악, 금라인사스왑라인까지 영향력 행사 가능성 - Financial Times**

(What could a Trump appointee do at the Fed?)

■ **유로존 경제, 對美 관세합의 및 실질 임금 상승 등으로 회복 기대 증가 - WSJ**

(Eurozone Economy Shows Signs of Resilience Even as Tariffs Bite)

■ **신흥국의 경기회복 지속, 미국의 고관세 압력·달러화 강세 등의 장애물에 직면 - Reuters**

(Emerging market revival hopes run into dollar difficul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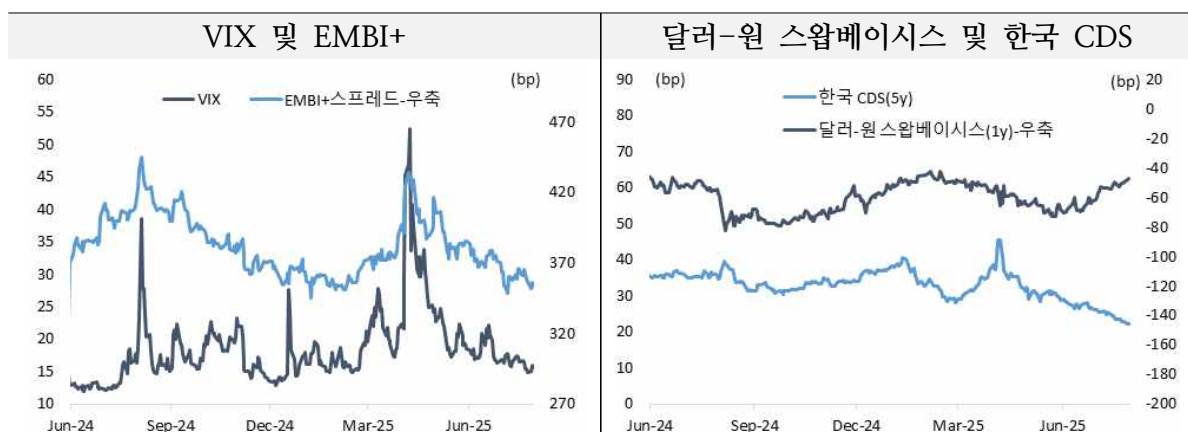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